

순창 훈몽재, 대륙의 유학 혼을 깨운다

중국 대학 교수·학생 50여명 '학술문화 교류 행사' 참여 주자학·소학·대학 등 공부 중국인 유학 배움터로 인기

순창군의 훈몽재가 중국 대학과 교류 행사를 갖는 등 정통유학의 배움터로 자리 잡고 있다.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1주일 간 중국 4개 대학 교수와 대학원생, 대학생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훈몽재에서 '학술문화 교류 행사'가 열렸다.

이번 교류행사에는 중국 남창·호남과기·무한·심천대학 등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유수의 4개 대학에서 참여했다.

행사 참여자들은 훈몽재에서 유학의 정수인 주자학, 소학, 대학 등을 공부하면서 유학 사상의 진수를 배웠다.

중국 유학의 본고장이지만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유학에 대한 학술적 자료 등이 상당수 소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유교에 대한 학문적, 문화적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오고 있는 한국이 유학을 공부하는 중국 학생들에게 매력적 배움의 장소로 주목 받고 있다.

훈몽재는 조선 유학의 큰 별 허서 김인후 선생이 강학하던 곳으로, 고당 김충호



중국 남창, 호남과기, 무한, 심천대학의 교수·대학원생·대학생 등 50여명이 훈몽재에서 주자학, 대학 등 유학 사상 강연을 듣고 있다. <순창군 제공>

산장을 비롯해 유학의 정통을 잇고 있는 학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장점이 있다.

이곳은 6·25 한국전쟁 당시 소실됐던 건물물 2009년 순창군이 건국해 정통유학의 배움터로 자리 잡고 있다.

또 2017년부터 중국과의 학술문화 교류 행사를 이어오고 있어 중국 유학생들이 유학 공부하는 데는 안성맞춤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순창군은 주자학, 소학, 대학 등 유학 강학에 중점을 두고 행사를 진행했으며, 대금공연 등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알리는 데도 힘썼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현재 훈몽재를 비롯한 유학기관은 물론 중국 처장단 방문 팸투어 등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훈몽재를 중심으로 중국과 학술문화 교류 행사를 비롯해 관광, 농업농촌 부문까지 확대해 중국에 순창의 매력을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공공 배달업' 추진

군산사랑상품권 토대 12월까지 시범운영 거쳐 내년 본격 출시

군산시는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군산사랑상품권 사업을 토대로 공공 배달업 활용 골목상권 활성화 장기 전략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단계 사업이었던 군산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으로 군산경제 활성화에 마중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배달업 수수료와 광고료를 없앤 군산시 공공배달업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배달업을 사용하려는 사업주는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배달이 가능한 음식점이면 가능하다.

이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본격 출시 계획으로 소

물고기도 키우고 채소도 재배하고

고창 '아쿠아포닉스' 기법 눈길...농약·화학비료 안써

고창지역에서 색다른 방법으로 농특산물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 관심이 쏠린다.

고창군에 따르면 성내면(주)아로니아 하우스에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아쿠아포닉스' 기법을 도입했다.

아쿠아포닉스(Aquaponics)는 물고기 양식(Aquaculture)과 수경재배

(Hydroponics)를 결합해 만든 합성이다. 아로니아하우스는 물고기 양식용 수조와 물을 순환시키는 배수펌프를 갖추고, 양식 과정에서 나오는 유기물을 하우스 안 수로로 흘려보내 각종 채소를 재배하는 기법이다.

이 농업을 재배한 채소는 물고기 유기물이 비료 역할을 대신해 질소 함유량이 적

익산시, 결핵예방 선제적 대응

흉부X-ray검사·상담 등 지원

익산시가 환절기 결핵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결핵 예방을 위해 환자와 접촉자 대상으로 흉부 X-ray검사와 잠복결핵관련 검진,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가 지원하는 흉부 X-ray검사는 연중 2만5000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300여건의 잠복결핵관련 검진,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주민들의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결핵은 평소 호흡기, 면역력 유지 등 건강에 대한 관심과 기침예절과 같은 예방행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발병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특히 학업과 취업 등 스트레스와 함께 결핵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지는 청소년 시기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결핵의 치료는 정해진 기간 동안 항결핵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다.

이 자연친화적이며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 농법이 무비료·무농약의 유기농 농업으로 자연 증발하는 물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경쟁력 확보의 강점이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국내 아쿠아포닉스 농업은 아직 초창기이지만 이곳 시설은 타지역에서까지 견학을 올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창 농특산물 재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익산시, 결핵예방 선제적 대응

흉부X-ray검사·상담 등 지원

익산시가 환절기 결핵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결핵 예방을 위해 환자와 접촉자 대상으로 흉부 X-ray검사와 잠복결핵관련 검진,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가 지원하는 흉부 X-ray검사는 연중 2만5000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300여건의 잠복결핵관련 검진,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주민들의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결핵은 평소 호흡기, 면역력 유지 등 건강에 대한 관심과 기침예절과 같은 예방행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발병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특히 학업과 취업 등 스트레스와 함께 결핵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지는 청소년 시기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결핵의 치료는 정해진 기간 동안 항결핵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남원예총, '남원항일운동사' 책 발간

향토작가 윤영근·최원식씨 40여년 연구 내용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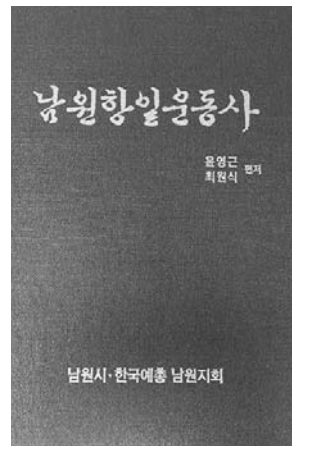
남원시와 한국예총 남원지회는 '남원항일운동사' 증보판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

이번에 새로 발간한 남원항일운동사 증보판은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남원의 3·1만세운동은 당시 덕과면 이석기 면장이 주도해 지역 전체로 확산한 순수 농민봉기였다. 전국 만세운동 현장에서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지만 남원 만세운동 현장에서는 이석기 면장이 작성한 격문이 낭독됐다.

격문에는 "성스러운 자손이 이처럼 치욕을 겪는다 무슨 낫으로 지하의 조상을 보겠는가. 조선 독립을 위한 노래 만세! 만세! 조선독립만세! 대한독립 만만세!"라는 내용이 담겼다.

남원 향토 작가인 윤영근씨와 최원식



씨가 40여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책에 담았다. 윤씨는 "경제 왜란이라고도 불리는데 일본 아베 정부의 경

제침략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때에 남원에서 발간한 남원항일운동사 증보판은 애국선열들의 조국애와 함께 항일 구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교재라고 보면 좋을 것이다"고 전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정음의 매력' 알리기 나선 청소년들

시, '1020크리에이터' 발대...동영상 제작 유튜브 전국 홍보

정음시가 청소년과 협력해 지역의 매력을 전국에 소개한다.

정음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잇 시티즌(With Citizen)' 관광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1020크리에이터'를 지난 24일 발대했다.<사진>

1020크리에이터는 1020세대들이 제작한 정음 관련 동영상이 담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생생하고 역동감 넘치는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 구성됐다. 또 트렌드에 맞춰 청소년에게 올바른 매체 사용방법과 콘텐츠 제작 기술을 교육하고자 기획됐다.

발대식에서는 35명의 크리에이터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콘텐츠 제작과 편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추후 활동 방향과 미션 안내

등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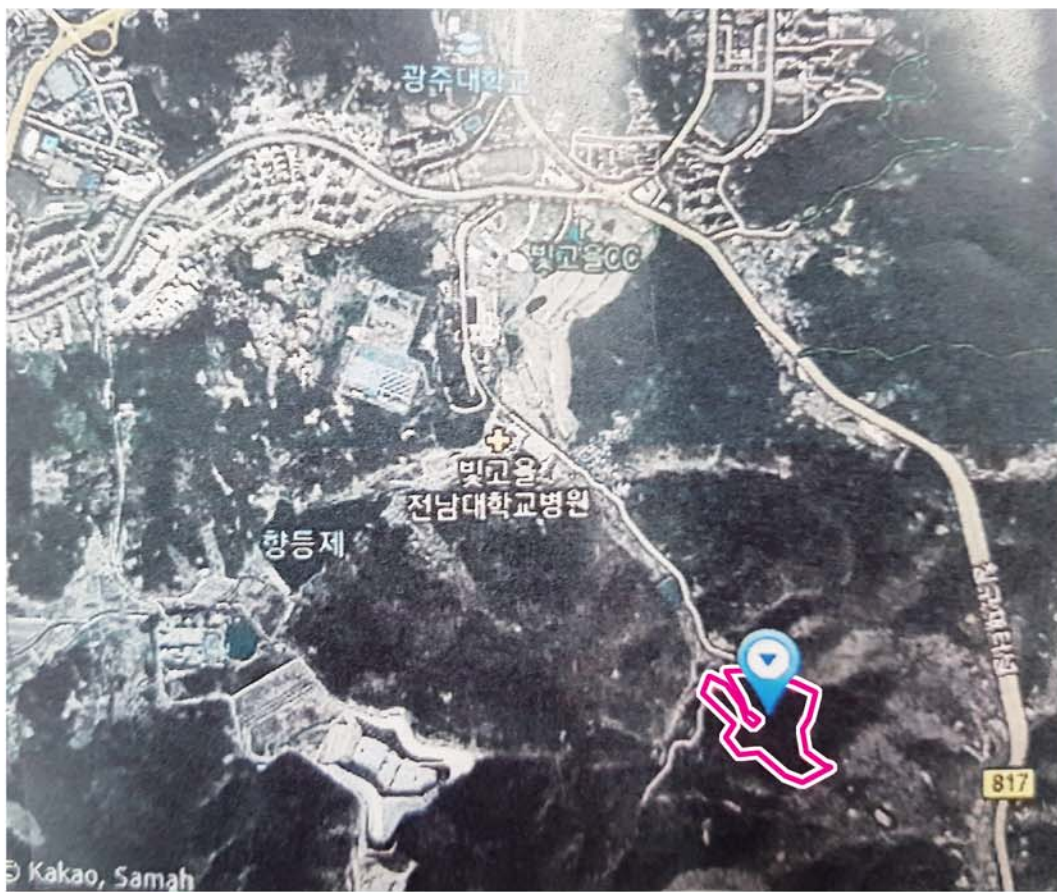
지난 4월 모집돼 사전활동을 진행해오던 크리에이터는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시는 매월 정음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 낼 수 있는 새로운 미션을 제시하고 우수자를 선정해 연말에는 우수 크리에이터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또 매 미션별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하고 소정의 상품도 지급함으로써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정음시 관계자는 "1020세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은 영상을 통해 새로운 정음의 매력을 전국에 홍보하겠다"며 "시민과 관광객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음=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덕남동, 임야 급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